



전주완산소방서, 대형판매시설 현장 지도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는 지난 16일 관내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용머리로 31)을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지도 방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여 화재 시 다수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서장이 직접 방문하여 화재취약 요인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자율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장수 서장은 현장에서 △사업장 안전관리계획과 운영 실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상황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체계 구축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김장수 서장은 "판매시설은 화재 시 사람이 일시에 몰려 피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대비와 안전 점검이 중요하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재훈기자



농협 순창지부·남원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 봉사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김현수)와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소장 정경진)는 지난 16일 순창군 인계면 취아농가를 찾아 집 내부의 오래된 벽지교체와 주변 환경정리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농협중앙회와 법무부의 업무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일손돕기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사회봉사대상자 봉사활동을 통해 영농직업 및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현수 지부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소 봉사자들의 재능 봉사 참여를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된 농촌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남원의료원 돌봄연계 협약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위해

남원시는 지난 16일, 지역주민에게 의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퇴원환자를 가정에서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원의료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의료원이 퇴원환자를 남원시에 연계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의 수시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상담까지 이어져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각적인 방향으로 분석하여 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남원의료원과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가능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양 기관은 협약에 이어 업무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의료복지 연계에 대한 심포지엄 행사를 가졌으며, 1부 행사에서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추진단 김수환서기관의 정부정책 강의를 시작으로 부산광역시의료원 성화신팀장, 전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오경재 단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남원시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지며, 오진규 남원의료원 관리부장 주재로 국립중앙의료원 손승인 팀장, 남원시 주민복지과 방미자 과장, 남원노인복지관 송성희 사무국장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남원시는 23개 읍면동에 복지·간호 상담공무원 49명을 추가배치 완료, 이를 통해 남원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참여

최훈식 군수가 16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ENDViolence 캠페인'에 동참하며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ENDViolence 캠페인'은 아동·청소년을 향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외교부와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아동폭력 근절 메시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인스타그램 릴레이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권익현 부안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아동이 폭력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최 군수는 다음 캠페인의 참여자로 안호영 국회의원, 황인홍 무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를 추천했다. /장수=고관호기자

무주군, 귀농귀촌협 장학금 100만원 등 기부 행렬 이어져

무주군으로 향하는 장학금 기탁 행렬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15일에는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가 (재)무주군교육발달장학재단 측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김진섭 대표는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기에 꼭 필요한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동참하게 됐다"라며 "무주가 제2의 고향이 된 만큼 부모 된 심정으로 아이들을 뒷받침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는 예비 귀농·귀촌인 컨설팅과 더불어 귀농인이 제대로 정착해 행복한 보금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로, 지역화합을 위한 동아리활동과 재능기부를 비롯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재)무주군교육발달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



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재육성에 관심 가져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여러분의 마음이 아이들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2022년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실시

남원시 건축과는 지난 16일 오후 1시부터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및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지만, 남원시는 이번 교육에 의무관리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교육에 참석을 유도했다.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교육의 주 내용은 공동주택 소방관련 법규설명, 소방시설, 소화기구 종류 및 사용법, 화재예방 대책 등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과 공동주택 주요 범죄 사례 및 예방 대책, 범죄대응 요령 등 방범교육으로 진행했다.

양근식 남원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자원봉사자들, 헌남노 피해지역 2차 복구지원 활동 나서

전북의 자원봉사자들이 태풍 '헌남노' 피해지역을 방문해 복구지원 활동에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도내 3개의 자원봉사센터가 함께했으며 세타 차량 3대도 지원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와 (사)전주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 임실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소병중)는 제11호 태풍 '헌남노'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일대(포항 등)에 15일부터 17일까지 2차 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경상북도자원봉사센터 지원요청에 따라 9월 7일부터 9일까지 2차 3일간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세탁차량(25)과 이동급식차량(5), 살수기 및 자원 봉사자를 지원했다.

이번 2차 지원은 도내 3개 자원봉사센터(도 전주, 임실)가 함께 세탁차량 3대(수거-세탁-건조-배달)를 지원해 포항 지역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돕는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김광호 이사장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복구 지원활동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들은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054-855-1365)와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063-227-1365)에서 상담 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각종 풍수해 등에 의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14개 시군과 각종 차량 및 장비들 사전에 점검해 피해발생 시 도내 자원봉사자와 함께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